



**특집** \_ 러시아 CIS 독립운동가 후손 23명 방한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순례 “선조의 독립운동 기억해줘 가슴 뿌듯”  
**화제** \_ 아베 정권 역사 인식에 지식인들 우려 · 경고 확산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촉구 등 잇따 성명



# 삼국시대의 걸작 환두대도

## 소유자의 지위와 권위 상징



1

**고**리 자루 큰 칼인 환두대도(環頭大刀)는 손잡이의 끝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 붙인 칼로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무기이다. 그중 칼을 지닌 사람의 권위와 군사 지휘권을 드러내 주도록 금, 금동, 은 등의 귀금속을 이용해 화려하게 만든 것은 장식대도(粧飾大刀)라고도 한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시내에는 당시 지배층이 묻혀 있는 거대한 무덤이 여럿 남아 있다. 그중 황남대총은 쌍무덤으로서 남쪽 무덤에는 남자, 북쪽 무덤에는 여자가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의 규모와 출토된 부장품의 질과 양으로 보아 신라의 왕과 왕비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쪽 무덤의 주인공인 왕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고리 자루 큰 칼은 손잡이 끝부분에 'C'자 모양의 작은 고리 세 개를 삼각형으로 붙여 만든 세 고리 자루 큰 칼이다. 왕의 칼로서 손색이 없도록 손잡이와 칼집 등 외관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금, 금동으로 장식해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신라 고리 자루 큰 칼의 절정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이 칼은 전체가 화려한 귀금속으로 장식돼 있고 새끼칼이 양쪽으로 붙은 점, 또한 칼날의 길이가 36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실전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하나인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휘황찬란함을 자랑한다. 1천20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 분석했더니 칼 손잡이 중간 부분에 W자 모양을 따라가면서 촘촘히 박은 지름 0.5mm의 금 알갱이가 무려 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2

1.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환두대도
2.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를 1천800만 화소로 촬영해 확대한 세부 모습. 환두라고 하는 손잡이의 둥근 고리 부분이다.



###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의 독립운동가 후손과 고려인 동포 등 23명은 6월 2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 02** 한국의 열      삼국시대의 걸작 환두대도  
소유자의 지위와 권위 상징
- 04** 특집            러시아 CIS 독립운동가 후손 23명 방한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순례 “선조의 독립운동 기억해줘 가슴 뿌듯”
- 06** 동포 소식      ‘조선족 희망’ 연변FC 중국 프로 축구 전반기 1위 외
- 09** 동포 캘린더    10월 개최 LA 한인 축제 전 세계에 생중계 외
- 10** 기획            유랑의 삶 극복한 우즈베키스탄의 한인사회  
상 하원의원 당선 등 각계서 두각
- 12** 화제            아베 정권 역사 인식에 지식인들 우려·경고 확산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촉구 등 잇따른 성명  
  
동포재단, 러·CIS 고려인 교사 초청해 역량강화 교육  
“전문 교수법 습득해 체계적으로 우리말과 얼 전할 겁니다”
- 14** 글로벌 코리아    세계한상대회 이끄는 송창근 KMK그룹 회장  
17년간 판사로 재직 중인 마크 김 LA 카운티 지법 판사  
베트남 통관·물류 1위 꿈꾸는 최분도 PTV 대표
- 16** 지구촌 통신원    ‘한류의 원조’ LA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  
전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 잔치
- 17** 동포정책 Q&A    변경 국민연금 납입하다 이민 간 사람에게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 5년 지나면 무효
- 18** 한민족 공감      일본 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  
불행했던 과거 역사 반영 사실상 합의
- 19** 동포의 창        한 동포의 작은 꿈  
이병준 \_ 미국 \_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 20** 동포문학        헤이체(黑車) 아저씨  
박종빈 \_ 중국 \_ 2014 재외동포문학상 중고등 부문 장려상
- 22** OKF 뉴스        동포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에 김소희 씨 ‘동행’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충남 부여의 연잎밥  
사찰 음식에서 유래한 건강식
- 26** 재단 공지

# 러시아 CIS 독립운동가 후손 23명 방한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순례 “선조의 독립운동 기억해줘 가슴 뿌듯”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서 온 고려인 동포 23명은 6월 23일 충남 천안의 독립 기념관을 찾아 항일 역사를 배우고 체험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의 독립운동가 후손과 고려인 동포 등 23명은 6월 2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들 가운데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증손녀 마이야 쉘피나 씨, 계봉우 선생 후손인 계 빅토리아 씨, 김만겸 선생 증손자인 김 세레브라코브 유리 씨와 맹 게르만 동욱 고위즈 씨 등이 포함됐다.

1930년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동포 허 예가쨬리나씨도 90세라는 고령을 딛고 고국 땅을 찾았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척박한 땅에서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온 고려인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들의 고국 방문이 민족정신을 한층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독립운동가 후손 “선조 기억해줘 감사”

“모국에서 고려인 선조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해주는 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23일 오전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찾은 고려인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고려인 열사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둔 사실에 감격했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의 증손녀인 마이야 쉘피나(여·47) 씨는 독립기념관 전시관에서 증조부의 사진과 독립운동 행적을 담은 자료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이야 씨는 “독립기념관에서 증조부의 사진을 접할 줄은 몰랐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오늘처럼 기쁜 적이 없었다”고 뿌듯해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의 다양한 전시관과 잘 꾸며놓은 시설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기념관을 둘러보니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헤쳐 왔기에 오늘날 면역력이 생겨 독립국으로서 세계에 우뚝 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순 클라리마·여·61·러시아, 고려인 강제 이주 후손).

“그리던 모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발전상에 깜짝 놀랐고 아픈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기념관에 와보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고 느꼈습니다.” (박 유리이·남·74·우즈베키스탄, 고려인노인협회장)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한국이 오늘날 독립국으로 번영을 누리는 걸 보니 우크라이나도 한마음으로 뭉치기만 한다면 분쟁 등 주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뚝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석 까체리나·40·우크라이나, 유공동포)

방한단의 최고령자인 허 예까찌리나(여·90·우즈베키스탄) 씨는 “12살 때 러시아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아픔을 겪어 힘없는 민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친정인 모국이 잘살아서 마음 든든하다”고 반겼다.

이들은 오후에는 천안의 국립 망향의 동산에 찾아 분향과 헌화를 하며 머나먼 이역 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다 죽어서야 고국에 묻힌 재외동포들의 넋을 위로했다.

모국 방문단은 24일에는 용인시의 한국민속촌과 서울의 63시티, 이랜드 크루즈 등을 방문하며 고국의 전통문화와 발전상을 체험했다. 이어 25일에는 수원시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을 견학한 후 서울에서 경복궁, 청계천, 남대문시장 등을 방문하고 26일 출국했다.

출국에 앞서 열린 소감발표회에서 계 빅토리아(여·45·카자흐스탄) 씨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됐다”며 “궁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해준 것에 감사하고 돌아가서도 한민족으로 당당하게 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창**

독립운동가 후손 등 고려인 모국방문단은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조의 기록이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사실을 감격스러워했다.



고려인 모국방문단은 23일 오후 충남 천안의 '망향의 동산'을 찾아 헌화하면서 이곳에 묻힌 재외동포의 넋을 기렸다.

## ‘조선족 희망’ 연변FC 중국 프로 축구 전반기 1위

‘200만 조선족의 희망’ 연변FC팀이 중국 프로 축구 2부 갑(甲)급 리그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해 중국 동포들을 열광시켰다. 연변FC는 6월 27일 홈구장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옌지(延吉) 인민경기장에서 열린 15라운드 칭다오(靑島)FC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로써 연변FC는 올 시즌 8승 7무, 승점 31점을 확보해 전반기 1위를 확정했다.

중국 프로 축구에서 유일하게 조선족 선수 위주로 구성된 연변FC는 축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경기장에는 연변FC팀 역대 최다 관람객인 2만 8천여 명의 흥팬이 몰려 열린 응원을 펼쳤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후반기 선전을 기원하는 모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프로 축구 연변FC의 지휘봉을 잡은 박태하 감독

습이었다.

연변FC는 올 시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출신의 박태하 감독을 영입하고 전지훈련에서 맹훈련한 끝에 작년 최하위권에서 올해 리그 1위로 도약하는 이변을 나타냈다. 연변FC는 지난해 부진한 성적으로 2부 갑급 리그에서 3부 을(乙)급 리그로 강등됐으나 2부 한 팀의 해체로 갑급 리그 잔류의 행운을 누리면서 올해 15라운드까지 무패 기록을 세웠다.

박태하 감독은 “팀을 맡아 작년 경기 영상을 보면서 선수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선수들이 코칭스태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든 훈련을 잘 견디는 등 좋은 성적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 “우리는 가족” ‘한국 입양아 공동체’ 호주 뉴캐슬 한글학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뉴캐슬의 한글학교 ‘뉴캐슬 한글 배움터’ (교장 오세옥)가 5월 3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가족 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개교 이듬해인 2001년부터 매년 진행되면서 학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인 입양아와 그들의 현자인 부모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왔다.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호주식과 한국식 식사를 하고 부시 워킹(관목지대 하이킹)과 생태 체험 활동 등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입양아인 로완 랭포드(18·배호영) 군은 “처음에는 한글학교에 다니기 싫었지만 학교에 계속 나오면서 한국을 더 알게 되고 올해



한국 입양아들이 주로 참여하는 호주 ‘뉴캐슬 한글 배움터’의 학생들이 연례 캠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 4주간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데 자부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춤을 좋아해 호주의 오디션에도 참가했다는 랭포드 군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한국에서 활동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한국 아이 3명을 입양해 자신의 아이 2명과 함께 키우는 제임스 올리버 씨는 “아이들과 한국을 다섯 차례 방문했다”면서 “한글학교에서 우정을 쌓고 문화 차이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흠족해했다.

시드니 총영사관에 등록된 한글학교가 38개, 호주 전체로는 51곳 정도로 파악되지만 뉴캐슬 한글학교처럼 정기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유일하다는 게 시드니 한국 교육원 강수환 원장의 설명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들 네팔 지진 피해 돕기 바자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미들랜드에 위치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네팔 지진 피해자 돕기 바자'가 열렸다.

이날은 1991년 설립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1996년부터 매년 자선 바자를 여는 사실상 남아공 한인들의 축제일.

김밥, 호떡, 족발, 닭강정, 튀김, 잔치국수 등 한국 음식과 가전제품, 의류, 생선, 각종 생필품 등이 마련된 교회 앞마당 부스는 초겨울치고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포들과 남아공 현지인들로 붐볐다.

두 달 전부터 교회에서 모여 준비해온 만두와 찐빵은 바자가 열리기도 전에 1천여 팩이나 팔려나가는 등 인기를 끌었고 김밥, 떡볶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네팔 지진 피해자 돕기 바자'와 함께 열린 지역 연합 체육대회 축구경기

이, 잔치국수 등 한국 재래시장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음식들도 제공돼 동포들의 입과 향수를 달랠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이날 바자 수익금에 모금액을 합쳐 1만 달러(약 1천120만 원) 정도를 네팔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바자에 참석한 암릿 바하두르 라이 네팔 대사는 "남아공 한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대단한 행사에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지난 1999년 터키 대지진, 몇 년 전의 북한 홍수, 남아공 알렉산드라 홍수 등 재난 때 자선 바자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피해자들을 도왔다.

## 주일대사관, 6·25 재일학도병 참전자와 유족 초청

6월 25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의 주일 대사관저. 6·25 전쟁 때 외국 생활의 안전을 포기한 채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노병' 이봉남(96) 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주위는 숙연해졌다. 이날은 6·25 발발 65주년을 맞아 대사관이 이 옹과 박봉민·유재만 옹 등 참전용사 3명과 유족 최명자 씨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패 등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 옹은 "조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라디오로 듣고는 또다시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슬픈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나라 없이 무엇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참전을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전 후 제대를 해서 일본에 돌아갈 마음을 먹었을 때 '전사한 사람들의 가족을 내가 어떻게 대



주일 대사관저에서 재일학도 의용군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1년 반 동안 국방부와 미8군 사령부를 통해 50명의 유골을 찾아 그것을 들고 일본에 돌아왔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서 전사한 83명의 유골을 하루빨리 국군묘지에 모셔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하던 중 자발적으로 참전한 642명의 재일학도의용군은 인천상륙작전, 이원·원산작전, 백마고지 및 금화지구 전투, 장진호 전투 등

6·25 전쟁 중 여러 격전에 참전했으며, 총 13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이들은 1967년 중동전쟁 당시 해외유학 중이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조국으로 달려간 것보다 17년이나 빨랐기에 '세계 최초의 유학생 학도의용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 사할린서 한인 강제징용 희생자 기리는 추념식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사업회는 6월 1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추념식을 열었다. 사할린주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메가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현지 한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는 애초에 합동 추모비 건립을 계획했지만 사할린주의 내부 사정 탓에 오는 8월로 연기하고 추념식으로 대체했다.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은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강제 노역 등으로 사망하거나 1945년 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

본의 패전 이후 사할린에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냉전 체제 속에 정부는 사할린에 남은 동포를 방치했고,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은 생존을 위해 북한이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살았다.

지난 4월 설립된 기념사업회는 대북·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10여년간 해오고 있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부설기관이다. 이번 추념식을 시작으로 사할린 한인들

을 위한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서 6월 11일에 첫 후원회가 열리는 등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 파독 간호사 출신 26명 5박6일 고국 여행

50년 전 외화벌이의 주역으로 활동한 파독 간호사들이 재유럽한인간호사회 주최로 5박6일간 고국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유럽에서 한국까지 먼 걸음을 마다치 않고 한곳에 모였다.

유럽 각지에 살고 있던 파독 간호사 21명은 5월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입국했으며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5명도 합류해 총 26명이 함께 국내 여행길에 올랐다. 이들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난 반가움과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고국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양순(70·여) 씨는 "2년 전에도 왔지만 이번에 보니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없어지고 주변이 깔끔해졌으며, 한국이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고국을 찾은 파독 간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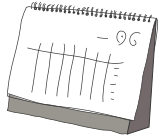
볼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간 것은 50여 년 전이지만 이들은 모두 출국 날짜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함부르크 한인여성회 김선배(66) 회장은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는 알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파독의 역사를 잘 모른다"며 "파독 간호사가 지금 잘사는 한국을 만들도록 뒷받침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6월 7일 전세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출발해 5박6일간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울릉도, 독도,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오대산 등지를 돌아봤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





## 10월 개최 LA 한인 축제 전 세계에 생중계

LA한인축제재단과 비디오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에어라이브코리아는 6월 23일 서울 강남구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4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LA 한인 축제는 에어라이브의 모바일과 웹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42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재미동포 사회 최대 규모 잔치로 제9회 농수산물 및 우수상품 엑스포, 제4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엑스포도 함께 열린다.



##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서울서 세계대회 개최

국제결혼으로 세계에 진출한 한인 여성들이 오는 10월 고국에 모여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 · 회장 정경옥)는 10월 19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The-K호텔에서 '세계 국제결혼 여성을 하나로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제11회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World-KIMWA는 세계 16개국 34개 지회에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둔 국제단체로, 2005년부터 매년 모국에서 세계대회를 열고 있다



## 재일동포 인재 등용문 '민단 문화상' 공모

재일본대한국민단(단장 오공태)은 재일동포 문화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단 문화상'을 공모한다. 최근에는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모국의 동포와 일본 현지인의 참여도 늘어나는 등 경쟁이 치열해져 동포사회의 인재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출 마감은 9월 4일이며 응모 요령과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3454-461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indan.org/kr>)를 참조하면 된다.



## 이민사박물관 '사할린 한인 망향가' 특별전 연다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한국이민사박물관(관장 김상열)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사할린 한인들을 소개하는 '사할린 한인 망향가' 특별전을 연다. 사할린 한인의 끝까지 않은 이산의 고통과 역경을 헤쳐온 삶을 보여주는 특별전은 9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며 ▲1945년 광복 이전 ▲광복 후 1992년 영주 귀국 전까지 ▲영주 귀국 사업 시작 후 가족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까지 등 시대를 셋으로 구분해 전시할 예정이다.



## 뉴델리에서 전 인도 케이팝 경연대회 개최

주인도 한국문화원은 오는 8월 뉴델리에서 전 인도 케이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원의 주관 하에 2012년 8월 인도에서 최초로 개최한 전 인도 케이팝 경연대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케이팝 동호인들의 연례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4년 경연대회는 온라인 예선, 4개 지역 예선, 델리 본선을 거치며 연인원 6천여 명이 케이팝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50주년 행사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식이 9월 20일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남부 차카부코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식 이민을 통해 한인들이 아르헨티나 땅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65년 10월 14일. '어제 오늘 내일, 함께하는 50년'을 슬로건으로 한 한인 이민 50주년 행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의 다문화 축제 프로그램에도 포함됐다.



# 유랑의 삶 극복한 우즈베키스탄의 한인사회 상 하원의원 당선 등 각계서 두각

고려인은 1863년 최윤보 등 함경북도 경원 지방에 살던 13가족 60여 명이 두만강을 건너 당시 러시아의 영토였던 연해주 지신허 마을에 첫 정착을 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매년 조금씩 이주한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등 연해주에서 새 삶의 터전을 일군다. 이들은 일제 때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스탈린 시기인 1937년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된다.

스탈린 정권은 철저히 계획된 강제이주 실행에 앞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2년 동안 교사, 언론인, 작가, 의사, 관리 등 고려인 지도급 인사 2천500여 명을 반당 분자 등의 명목으로 숙청, 고려인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후 9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7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을 화물열차에 태워 6천여 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이 정착해야 했던 우즈베키스탄에는 몸을 누일 집이 없어 대부분 움막이나 땅굴에서 잠을 자며 겨울을

나야 했다. 농장으로 개간해야 할 땅은 문자 그대로 황무지였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고려인들은 근면성과 인내심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쌀과 목화 등을 경작해 최고의 생산성을 이룩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40분쯤 가면 김병화 박물관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콜호스(집단농장) 중 하나였던 북극성 콜호스의 지도자 김병화를 기리기 위한 곳이다. 그는 300만 평의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구소련 최고의 모범 농장으로 육성해 두 번에 걸쳐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고려인 성공 신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난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신문' 편집장인 김부르트와 후배 김미하일이 함께 쓴 황만금 평전의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 고려인 출신 황만금은 30여 년 동안 폴리타젤이라는 고려인 집단농장을 경영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자그마한 농장을 생산성 높은 집단농장으로 발전시킨 이다. 폴리타젤의 생산성은 일반적인 집단농장의 몇 배에 달했으며 고려인뿐 아니라 우즈베키





스탄 집단농장  
의 희망이 됐다.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흐  
루쇼프, 브레즈네프 등 지도자는 물론이고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의 농장을 견학하면서 집단농장의  
역사적 성공 사례로 꼽았다.

고려인 억압 정책에 대한 소련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복권은 1989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 고난의 역사 딛고 존경받는 민족으로 우뚝 서

빅토르 박(56) 고려문화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시행된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타슈켄트 주 우르타치리크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우즈베키  
스탄에서는 임명직인 상원의원을 지낸 고려인이 2명 있었으나 선출직 당선은 박 회장이 처  
음이다. 올 1월 15일에는 아그리피나 신(56) 타슈켄트 IT 고등학교 교장이 총선에서 상원의  
원에 당선됐다. 고려인이 양원에 모두 진출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한류 붐까지 일면서 고려인 동포들  
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그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제품의 우  
즈베키스탄 가전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1만 2천 명에 달한다.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가운데 한국어를 학습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따라 배워야 할 모범 국가로 생각한다. 한국어를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이들을 중심  
으로, 특히 우즈베키스탄 미래 세대인 청소년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행 열기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5월 27~29일 국빈 방문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  
터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와 한 가족으로 살아왔다”면서 “우즈베키스탄 고려  
인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동등한 국민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17만 3천832명으로, CIS 지역에서 가장 많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400여 개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다. 양국 간 진행 중인 대규모 협력 사업은 수르길 가스전 프로젝트(39  
억 달러), 가스 액화 사업(31억 달러), 칸디 가스전 개발(27억 달러), 탈리마잔 발전소 현대화  
사업(8억 2천만 달러), 고속도로 건설(1억 7천만 달러) 등 다양하다. **[참]**



1. 1989년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장에서 김치, 된장 등을 파는 고려인들
2. 1997년 6월 대우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에서 면방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3. 한국어문화회가 개설돼 있는 타슈켄트의 니자미 사범대 전경
4.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015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5. 1989년 타슈켄트에서 노래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는 고려인들
6. 2007년 9월 21일 타슈켄트에서 열린 '고려인 문화 협회' 헌판식

아베 정권 역사 인식에 지식인들 우려 · 경고 확산

#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촉구 등 잇따른 성명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오른쪽) 전 총리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6월 9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을 비롯한 각국 지식인이 잇따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두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작년 10월 15일 성명을 발표해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역사학자 187명은 5월 6일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역사를 추구하는 일본의 용기 있는 역사 학자들과의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5월 25일에는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 · 교육 관련 단체가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며 역사학계의 시각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6월 8일 발표된 일본 지식인 281명의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전후 70년 담화에 관한 우려를 함께 담았다. 이들은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고노(河野) 담화 발표 이후 이뤄진 많은 연구를 거론하며 “일본 국가,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아베 총리나 그에게 조언하는 학자가 70년 담화에서 굳이 반복해 밝힐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사죄’를 다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9일 일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후 70주년 대담에서 전후 50주년인 1995년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낸 무라야마 도미이치(富市) 전 총리와 1993년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洋平) 전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무라야마는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무라야마 담화를 제대로 계승한다면 솔직하고 확실하게 명기함으로써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고노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군위안부 강제 연행의 명확한 증거로 유명한, 1944년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해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근교에 억류하고 위안부로 삼은, 이른바 ‘스마랑 사건’을 거론했다. 아베 정권을 향한 쓴소리를 자제했던 고노 전 관방장관의 ‘격정’은 청중석을 꽉 채운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



일본 지식인 281명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6월 8일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동포재단, 러·CIS 고려인 교사 초청해 역량 강화 교육

# “전문 교수법 습득해 체계적으로 우리말과 얼 전할 겁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6월 8일 시작된 ‘2015년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장기 초청연수’ 참가자는 4명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이들은 8월 19일까지 11주 동안 서울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역사·문화 등을 배우고 있다.

고려인 동포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단절 극복과 차세대 인재 육성을 담당할 교육자 양성을 위해 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한국어교사 역량 강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언어교육원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평가를 실시해 한국어 능력별로 반을 배정했다. 이번 연수는 참가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교수법 학습과 더불어 모국어인 한글과 한국의 문화·역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사들은 ‘교수법’을 익히게 된 것을 가장 반겼다. 이들은 “우리말을 잘한다는 것과 잘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체계적으로 우리말과 얼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돼 교단에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글학교의 심 이리나(여·39) 교장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지만 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면서 “3달간의 연수 기회를 얻게 돼 너무 기쁘고 알차게 익혀서 전부 학생들에게 전수할 작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카자흐스탄 악토베의 무궁화학교 교사인 박 리디야(여·54) 씨는 “교사가 부족해 40명 학생을 혼자서 가르쳤다”며 “교사 양성이 절실했는데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며 즐거워했다.

한국 문화 체험으로 비빔 공연, 난타공연,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예절 배우기, 고궁·박물관 견학, 서울 풍물시장 탐방에 나서며 제주도, 전주, 부여, 공주 등 지방문화도 둘러보게 된다.

재단과 언어교육원은 교사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도 마련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국의 의식주 생활문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통일,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 등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하고 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고려인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사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교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본인 스스로가 ‘고려사람’ 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장**



‘2015년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장기 초청연수’에 참가한 고려인 교사들은 ‘한국어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 것을 가장 반겼다. 사진 좌측부터 정 줄리나(우즈베키스탄), 정 안나(우즈베키스탄), 박 리디야(카자흐스탄), 심 이리나(러시아)

## 세계한상대회 이끄는 송창근 KMK그룹 회장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



세계한상대회 이끄는 송창근 KMK그룹 회장

6월 9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브레인스토밍 회의' 참석차 방한한 송창근 KMK그룹 회장은 '청년 취업 불황 극복'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린다. 지난 4월 대회장에 선출된 그는 재외동포재단 임직원과 주요 한상 리딩 CEO들과 함께 한상대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상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송 회장은 한상대회 기간에 경주와 경상북도의 주요 20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페스티벌'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발된 해외 취업 희망자들이 인턴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상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즉석에서 면접도 치른다.

그는 한상대회가 모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에 한상을 통한 지속적인 장학 사업에 대한 논의도 계획하고 있다. 송 회장은 "리딩 CEO를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재 육성 장학사업도 펼치고 탈북 청소년도 돕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신발업계의 '큰손'인 송 회장은 1988년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단돈 300달러로 사업을 시작, 6개 계열사에 2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다. KMK는 나이키, 컨버스, 헌터부츠 등 세계적인 브랜드 신발을 연간 3천만 켤레 생산해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외 인턴십을 통해 10여 명의 국내 청년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을 통해 활력 넘치는 한상대회를 개최할 작정"이라며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견인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한상의 존재감을 국내에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17년간 판사로 재직 중인 마크 김 LA 카운티 지법 판사 한미 양국 간 사법제도 차이 커

미국 법원에서 한국인으로서 가장 긴 기간인 17년간 판사로 재직 중인 마크 김(53)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법 판사는 6월 2일 국민 참여(배심원) 재판·플리바게닝(유죄 인정이나 증언의 대가로 형량을 경감·조정하는 협상 제도)·법관 임용 문제 등 한미 양국 간 사법제도 차이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5월 한국 대검찰청과 세계한인검사협회(KPA)가 공동

주최한 '2015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한국 사법제도에 플리바게닝이 없다는 게 신기하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배심원제가 미국과는 다르다고도 했다. 미국은 경범이든 중범이든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중범이어야 한다는 것.

김 판사는 "한국을 방문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기나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관록 있는 동료 검



사·판사들이 모두 옷을 벗는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이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인재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검찰이 특별한 사건을 별도 수사할 수 있지만 모든 수사를 다 관장하는 게 가능한 일이나”고 묻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90년 지방 검사보를 거쳐 1998년 LA 카운티 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3년간 LA 카운티 남부지법 법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김규식 박사 등과 함께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송헌주 애국지사의 증손자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LA 카운티 지법 법정에 앉은 마크 김 판사

베트남 통관·물류 1위 꿈꾸는 **최분도** PTV 대표

## 현지인을 존중하는 게 중요

“베트남의 잠재력요? 1억 인구 시장과 높은 성장률보다 대단한 건 교육열입니다. 생산 기지와 소비 시장 양쪽으로 성장하는 베트남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통관·물류 분야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PTV의 최분도 대표는 6월 5일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단언했다. 더욱이 한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경제 교류는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6월 1일 국내 통관 분야 1위 업체인 에이원과 업무협력(MOU)을 맺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FTA에 따라 양국의 통관·관세·순차적 개방 순위 등이 달라지는 것을 서로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에이원과 합의했다”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관세 통관 업무의 애로 사항에 대한 자문과 도움, 컨설팅 서비스 등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내 통관과 육·해·공 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PTV는 연간 5만여 건의 운송 대행을 하며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베트남 물류업계의 큰손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FTA를 기회로 삼아 PTV를 베트남 최고의 통관·물류 회사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



베트남 물류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PTV 최분도 사장

업 중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았다.

최 대표는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면 제일 먼저 베트남을 사랑하고 현지인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의 매력에 대해 “미국이 주도해 12개 국가에 무관세를 적용하려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베트남도 포함돼 있어 미국 시장 공략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이 우수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창**

# ‘한류의 원조’ LA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 전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 잔치

“차렷, 경례, 으라차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인더스트리 시 엑스포센터에서 5월 30일 열린 ‘2015 국제태권도 페스티벌’에서 태권 시범단이 공중 이단옆차기로 송판을 격파하자 관중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LA 국제태권도 페스티벌은 이 지역의 유일한 태권도 축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필리핀, 인도, 멕시코 등 세계 12개국과 미주 30개 주에서 선발된 태권도 선수 1천35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한국 실업 태권도연맹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여자부 5인 단체전 우승을 거둔 김제시청팀이 특별 게스트로 방문했다.

이들간 품새와 겨루기(개인전·단체전)를 통해 우승과 준우승을 가리는 국제대회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태권도인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흥겨운 잔치다. 실제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미국에서 태권도 인기가 상승하면서 ‘한류의 원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 태권도 대표팀 감독을 지낸 전영인(61) YIC 태권도장 관장이 창설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마스터 전’으로 불리는 전 사범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1980년 한국을 떠나 미국에 발을 디뎠다. 전 관장이 1994년 개최한 월드 태권도 페스티벌은 이후 LA 오픈 등 대회 명칭이 바뀐 적은 있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전 관장은 “미국에서 태권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현재 미주 전역의 도장 7천여 곳에서 150만여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기량 연마를 넘어 전 세계 이웃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스포츠로 정진할 것”이라며 “내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회장 중앙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리고 개막식에서는 애국가와 함께 미국 국가가 연주됐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태권 시범단의 격파 시범은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범단 막내인 베트남 소녀 설린 동(11) 양은 “6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다”면서 “태권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중시하는 무도”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에서 찾아온 태권도 선수와 선수 가족들은 이날 태권 격파 시범단의 공연을 즐기고, 각종 태권도 장비 전시와 판매 부스를 구경하면서 태권도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이 었다. **장**



세계 12개국과 미주 30개 주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에서 태권 시범단이 공중 이단옆차기를 하고 있다.



# 변경 국민연금 납입하다 이민 간 사람에게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 5년 지나면 무효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타국으로 이민하는 바람에 한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환 일시금이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도 있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 제도를 두고 있다. 소멸시효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법과 사법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이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공무원연금 등 국내 공적 연금들은 대체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 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고, 5월부터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가입자 내역 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 거주 불명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370건, 금액으로는 33억 원에 달한다.

일시금 신청은 영구 영주권자, 거주 여권(PR)을 취득한 사람,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등이 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 취득자나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단은 반환 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뒤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



윤석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5월 18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가 시행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으로 돌려받으며 가입 기간에 질병 또는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지급 사유 발생 3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고 지급 사유 발생 2개월이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

## Q&A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반환 일시금으로 반납 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가입기간 합산은 파견국에서 보험료를 낸 기간과 본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산정해줌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데,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에서 10년 미만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일본 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 불행했던 과거 역사 반영 사실상 합의



▲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2015.5.4

◀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산업혁명 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등재 결정문에 주석(註釋)을 다는 형식으로 해당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기로 6월 26일 사실상 합의했다. 주석 방식은 결정문 본문에 관련 내용이 직접 들어가는 것과는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강제 노동 사실이 결정문 자체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6월 21일 도쿄 회담에서 '강제 노동' 사실을 반영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해 해결의 가닥을 잡았고, 곧바로 최종문 외교부 교섭 대표가 다음날 도쿄로 건너가 일본 측 파트너인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 교류 심의관 겸 스포츠 담당 대사와 세부 조율을 벌였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는 일본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8개 현에 걸친 총 23개 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이들 23개 시설 가운데 나가사키(長崎) 현의 나가사키 조선소(미쓰비시 중공업),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7곳은 대일 항쟁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시설이다. 이들 7개

시설에 수만 명의 조선 사람이 강제 동원됐고 그중 94명이 강제 동원 중에 사망했다.

국회는 5월 12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산업혁명으로 미화해 고통 속에 희생된 우리 국민을 우롱했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중국 역시 일본의 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강력한 지지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일본, 독일의 비정부기구(NGO) 활동가와 학자 등 민간 인사들은 5월 8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해 독일인인 마리아 비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의장에게 어드윅트 역사도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는 "만일 이들 시설을 등재하려 한다면 불행했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밝혀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예컨대 위령비 건립 같은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해야 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창\]](#)

# 한 동포의 작은 꿈

이병준 미국 |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나는 고국을 떠난 지 30여 년도 훨씬 더 지나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한 노인을 공항으로 맞으러 나간 적이 있었다.

“30여 년 만에 고국을 둘러보신 느낌이 어떠하셨습니다?” 고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깜짝 놀랐다는 그의 감탄사를 나는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글쎄, 난 조국을 잃고 온 것 같아.” 돋보기 속으로 유난히 크게 보이는 그의 눈동자에는 서운함마저 서려 있어 보였다.

“고국을 찾겠노라 들었는데 그만 고국을 잃고 왔다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내게 그 어른이 한마디 덧 붙였지만 난 그 어른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여 더 이상 묻질 못했다.

무엇이 그 노인을 그렇게 서운하게 했을까 상상만 해볼 뿐 난 그의 구구한 사연을 되물을 용기가 없었다.

한번은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친구가 깔깔대며 고국 방문기를 내게 들려 주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고국에 들러 보니까 잠자리가 제일 불편해. 친척이나 친구들이 애들 방 비워주어 고맙기는 했지만 그게 바늘방석이더라고. 바쁘게 사는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야.”

“그러라고 여관이나 호텔 있잖아?” 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자 그가 버럭 소릴 질렀다.

“이 사람야. 서울의 여관은 더 이상 나그네 잠자고 가는 데가 아니라 길 몰라서 그래? 호텔이야 우리 같은 민초들에겐 그림의 떡이지.” 난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한마디 더 던졌다.

“그래서 소위 ‘짬질방’이란 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지.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앉으나 서나 꿇 속에서 폭포 소리가 들리더라고.”

난 그 친구의 얘길 들으며 그 노인이 고국을 잃고 왔다는 푸념의 일단은 알아낸 느낌이 들었다.

사실 친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국을 방문해 친척이나 친구 집에 묵게 돼 아이들을 부모 방에 합방시키고 아

이 방에 따리를 틀고 있노라면 그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집안에 안주인하고 둘만 남게 마련인데 아침부터 서두를 일이 없는 내가 방구석에서 다음 끼니나 기다리고 있거란 한나절을 버티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부모님 저 세상 가신 지 오랜 대부분의 이민자를 받아주는 안주인이라야 친구의 부인, 형수, 제수, 조카며느리 중의 하나일 테니 그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상대가 없다. 그러자니 자연 친구 출근할 때 뒤따라 나와서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간 그가 퇴근할 무렵 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자니 자질구레한 빨래만 가득한 검정 이민 가방 질질 끌고 이 집, 저 집 배회하는 게 여간 찝찝한 게 아니다. 대접이 극진하면 극진할수록 오래 머물기가 검연적어 부랴부랴 다음 행선지를 모색해야 하는 법이다.

안방에서 두런두런 얘기 소리만 흘러 나와도 괜히 찝끔해지고 새삼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잘나지 않은 아내 얼굴도 못내 그리워지곤 하는 게 그 맘 때쯤이다. 그 노인 어른이 겪었을 가장 큰 어려움이 잠자리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아무리 살갑게 잘 대접을 받았더라도 얼마나 불편했으며 마나님 손길만큼이야 했을 리 없던 것이다.

‘여관 방, 호텔 방 해봤자 서방만 하고 정승 자리, 판서 자리 해봤자 잠자리만이야 하려고?’ 하며 깔깔대던 친구의 너스레가 새삼 떠오른다.



정부가 고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숙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동포의 집(가칭)’을 지어 이용케 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해 본다. 서울서 공항 가는 길목에 아담한 건물 하나 지어 잠자리 불편한 동포들의 객고를 다소나마 풀어 준다면 모두 감격할 것이다.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동포들은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동포들과 교류도 하며 필요한 정보나 지식도 모으고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창**

# 헤이처(黑車) 아저씨

박종빈 중국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중고등 부문 장려상

그 날도 여느 때처럼 굉장히 늦어 버렸다. 시계바늘은 이미 일곱 시 삼십 분을 훌쩍 넘겨버렸지만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의 잔소리도 귓가에 윙윙거렸다. “엄마 갔다 올게요!”라고 소리치고는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갔다. 원래 학교를 갈 때면 버스를 탔지만 그날은 버스를 타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택시를 기다리자니 애가 탔다.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동생을 재촉하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섰다. 큰길가로 걸어 나왔지만 야속하게 지나가는 택시들은 모두 손님을 하나둘씩 태우고 있었다. 택시에 탄 손님들은 마치 늦게 일어난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양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는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발을 동동 굴러보았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역시 중국이다.

“어이, 차 타고 가니?”

별안간 뒤에서 중국어가 들려 왔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50대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흰색 차 보닛을 퐁퐁 두들기고 있었다. 차는 낡아서 금방이라도 신음 소리를 내며 땅 위에 엎어질 것 같았다. 바퀴 뒤에는 누가 회갈색으로 색칠을 해 놓은 양 흠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반쯤 열린 창문 테두리에는 곰팡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1980년대 초에나 출시되었을 것만 같은 경차를 아저씨는 옆에 두고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옆에서 멍하니 서있는 동생을 살짝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곤 그 차에 탔다.

내가 타자 아저씨는 곧바로 “한국국제학교 가지?”라고 나를 몇 년 이상 본 것만 같은 친숙함으로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짧게 대답을 하니 아저씨는 누런 이빨을 다 드러내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시동을 걸었다.

중국의 주택 단지 앞에는 불법 택시가 많다. 사람들은 이 차들을 흔히 헤이처(黑車)라고 부르는데, ‘검을 흑’ 자가 중국어로 불법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중국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택시 노릇을 하고 있으니 불법인 셈이다. 게다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헤이처 관련 범죄도 심심찮게 풍문으로 들려오기 일쑤다. 그래서 학교나 중국 당국에서 헤이처 탑승을 자제해 달라고 일정 기간마다 공문을 가정집에 보내온다. 게다가 헤이처 기사 특성상 거리가 조금만 멀면 가격을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차문을 열고 타면 굉장히 짹짹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 아저씨가 나를 불렀을 때 껄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자동차는 끊임없이 털털거리면서 달렸다. 왕징의 제일 넓은 거리인 광순북대로로 나오자 러시아워라 그런지 차가 많이 밀려 있었다. 거리에서는 차들이 미세먼지를 뿜어대면서 빵빵거렸다. 여기저기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니 마치 차들이 합창을 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기어를 만지작거리다가 별안간 내게 물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 나이 때는 다 그렇죠 뭐.”

나는 영혼 없이 대꾸했다. 아저씨가 껄껄 웃더니 다시 말했다.



“그래도 배움이란 좋은 거다. 나는 초등학교 나오고 책은 만져보지도 못했다.”

아 그러세요? 라고 짧게 웅얼거리고는 개의치 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은 점점 짙어져 왔고 아저씨는 기어를 풀고 나한테 다시 물었다.

“너는 꿈이 있니?” 아저씨의 까망지만 깊은 눈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아. 꿈이 있어야지.” 아저씨는 꾸짖기라도 하듯 인성을 높이며 말했다. 지방 특유의 사투리가 물씬 묻어 나왔다. “나는 이 일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게 꿈이야. 이 차로 10년은 운전하면서 돈만 벌었으니까.”

“소수민족이십니까?”

“나는 몽골족이야.”

북경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저씨도 그런 경우였던 것이다. 그 많은 중국의 인구가 북경으로 몰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수가 상상이 되지 않아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신호등이 바뀌었는지 앞에서 멈춰 있던 차들이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차는 다시 털털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중국 온지는 얼마나 되었니?” 아저씨가 물었다.

“아, 올해로 10년이 되네요.”

“10년? 네가 그 신 조선족인 모양이구나?” 아저씨가 껄껄 웃었다.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신 조선족이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내가 사는 왕징이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수가 실감이 난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이롭고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나도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이윽고, 학교에 도착했다. 오성홍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하늘에서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20원을 내밀었지만, 아저씨는 “잠시만 기다리게!”라고 하며 나를 불러 세우며 5원을 건넸다.

“택시 타면 20원 나와요.” 내가 아저씨가 내민 5원을 밀어내며 말했다.

“아냐, 난 15원이면 충분해.” 아저씨가 다시 한 번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잘 챙겨 뒤” 내가 감사하다고 웃으며 인사하고 내리자, 자동차는 위태롭게 털털거리며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중국은 아직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또한 황금만능주의가 아직은 만연하다. 나도 중국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다. 그러나 20원을 건넬 때 과분하다며 5원을 도로 내주시던 그 아저씨의 눈빛과 손길이 아직 잊히지 않는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중국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어 가는 중국의 이런 세태 속에서 아직 중국인들의 따뜻한 인정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중국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마저 들 정도다. 비록 그 아저씨는 헤이처를 운전하고 있는 중국의 소시민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하고 싶다. 나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신 고마운 분이기 때문이다.

요즘 그 아저씨는 보이지 않는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충분해 내몽고로 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아직도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이지만, 나의 편견 속의 중국은 이미 빛이 바랬음에 감사하며, 헤이처 아저씨가 건넬 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 동포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에 김소희씨 '동행'



'제17회 재외동포문학상' 심사는 신경림·신달자·구효서·북거일·이경자·오정희·김형경·권지에 등 문단의 중진 시인, 소설가가 맡았다.

제17회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에 프랑스 동포 김소희(27·여) 씨의 '동행'이 뽑혔다.

이 문학상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매년 공모, 시상한다. 올해는 31개국에서 시 457편, 수필 175편 등 780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올해 문학상 심사는 6월 19일 서울 중구 센터원빌딩에 있는 한식당 '고상'에서 열렸다. 신경림·신달자·구효서·북거일·이경자·오정희·김형경·권지에 등 문단의 중진 시인, 소설가가 심사를 맡았다.

소설 부문 구효서 심사위원은 "대상 수상작 '동행'은 할아버지와 외손녀의 여행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부모의 이혼과 사별한 할머니를 그리는 끝나지 않은 할아버지의 동행을 따뜻하고 담담하게 그렸다"며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과 절제가 다른 작품보다 뛰어나 만장일치로 뽑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 부문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응모한 전승호(48) 씨의 '바다', 수필 부문은 프랑스 동포 원진숙(62·여) 씨의 '친구의 나라'가 각

각 대상에 선정됐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는 중고등부 한동영(17·중국) 군의 '폭죽과 중국과 나', 초등부 임혜준(11·미국) 양의 'Mount Olive의 사계절'이 최우수작의 명예를 안았다.

## 재외동포재단-남북하나재단, 동포·탈북 청소년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남북하나재단과 손잡고 동포 청소년, 탈북 청소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동포재단은 이날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재단은 동포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들을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조규형 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인 만큼 이들이 서로 소통하며 한민족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네팔 한인들 지진 피해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네팔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고 6월 19일 밝혔다.

동포재단은 지난 6월 15~17일 관련 부서

장을 네팔 카트만두로 파견해 한인 사회의 피해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네팔 지진으로 한인들은 크지 않은 부상과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카트만두 한글학교의 건물 일부가 무너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한인들은 지진에 따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면서 "시설 복구 및 재건,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해 복합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KBS와 동포 한글 교육 지원 협약



재외동포재단은 6월 15일 KBS와 재외동포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공유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KBS와 손잡고 재외동포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동포재단과 KBS는 이날 차세대 동포의 한글,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외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

# 바른 말 고운 말

**|| 왜 / 웬** '오른손, 왼손' 할 때의 '왼'은 바르게 쓰는데 '웬'이란 말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이란 말은 '웬일이세요?', '이게 웬 떡이야?' 등의 표현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 이유를 묻는다고보다는 어떻게 된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웬'이라고 씁니다.

한동안 유행하던 말 가운데 '오늘은 웬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앞의 '웬'과 달리 '웬'을 씁니다. '웬지'라는 말을 풀어 보면, '왜인지' 또는 '왜 그런지' 같이 이유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문사 '왜'에 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등의 뜻입니다. '웬일'은 '어찌 된 일, 혹은 의외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별하려면 이유의 뜻을 나타낼 때는 '웬지'와 같이 의문사 '웬'을 쓰고,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웬'을 쓴다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 ○○과 다르다** "요즘 버스타 지하철을 타고 보면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걱정입니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위의 예문에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보다 달라졌다'는 표현은 '○○와 다르다'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르다'란 말이 다른 것과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쓰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뿐만 아니라 '같다, 비슷하다' 역시 '○○와 같다, ○○와 비슷하다'로 씁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할 때는 '○○보다 좋다' 또는 '○○보다 나쁘다'와 같이 '보다'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란 표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    |    |    |   |    |    |    |
|----|----|----|----|---|----|----|----|
|    | 1  |    | 2  | 3 |    | 4  |    |
| 5  |    |    |    |   |    | 6  |    |
|    |    |    | 7  |   | 8  |    |    |
| 9  |    |    |    |   | 10 | 11 |    |
|    |    | 12 |    |   |    |    |    |
| 13 |    |    | 14 |   |    | 15 | 16 |
|    |    |    | 17 |   |    |    |    |
| 18 | 19 |    |    |   |    | 20 | 21 |
|    |    |    | 22 |   |    |    |    |

9. 우리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태조의 임금
10. 축을 중심으로 빙빙 돌려서 드나들게 만든 문. 큰 건물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온을 위해 설치한다.
13. 열은 열로써 다스림. 곧 열이 날 때에 땀을 낸다든지, 더위를 뜨거운 차를 마셔서 이긴다든지, 힘은 힘으로 물리친다는 따위를 이룰 때에 흔히 쓰는 말이다.
15. 바지 따위에서 다리가 들어가도록 된 부분
17. 매의 주둥이
18. 재물을 덥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겉면에 윤기가 없다.
20. 여자끼리의 동기(同氣). 언니와 여동생 사이를 이른다.
22.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을 가진 미개 인종

-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12.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13.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짓
14. 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 대개는 이 속에 씨가 들어 있다.
16.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19. 큰 나무의 가지나, 두 기둥 사이로 가로지른 막대에 두 가닥의 줄을 매어 늘이고, 줄의 맨 아래에 밀실개를 걸쳐 놓고 올라서서 몸을 움직여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 기구
21.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음

### ▶ 오른쪽 방향 열쇠

2.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
4.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 또는 그 음악을 목소리로 부름
5.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6. 어떤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
7. 여러 가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機器)

### ▶ 아래쪽 방향 열쇠

1.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 봄과 가을 사이이며, 낮이 길고 더운 계절
3. 옛날에는 분화했으나 지금은 분화를 멈춘 화산
4.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5. '구구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7.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해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
8.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11.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해 그 분야에

### ▶ 6월호 정답

|   |   |   |   |   |   |   |
|---|---|---|---|---|---|---|
| 부 | 앞 | 담 | 배 |   |   | 선 |
| 모 | 양 | 새 |   |   | 자 | 전 |
|   |   |   | 식 | 염 | 수 | 동 |
| 이 | 판 | 사 | 판 | 기 | 관 | 차 |
| 모 |   | 이 |   |   |   | 거 |
|   |   | 단 | 비 |   | 동 | 서 |
|   |   | 심 | 서 | 양 | 화 | 성 |
| 노 | 가 | 리 | 귀 | 공 | 미 | 자 |
| 숙 |   |   | 선 | 비 |   | 석 |

충남 부여의 연잎밥

# 사찰 음식에서 유래한 건강식



50여 종의 연꽃이 자생하는 부여 공남지

충남 부여, 즉 사비는 백제 후기 도읍으로 28대 성왕부터 마지막 왕인 의자왕까지 총 6명의 왕이 거쳐 갔다.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교문화를 꽃피운 왕도였던 만큼 음식 문화 또한 범상치 않았을 듯싶다. 연잎밥에서 그 자취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

연잎밥은 사찰 음식에서 유래했다. 사찰 음식 전문가인 대안 스님에 따르면 절 음식은 세간의 일반 음식과 다르다. 주린 배를 채우려고 의미 없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청결, 유연, 여법(如法) 등 불교에서 말하는 삼덕(三德)을 지켜야 한다. 음식이 청결하고, 부드럽고, 법도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부여 부소산성 인근에 위치한 '백제의집'의 연잎밥은 사찰 음식의 기본에 부합한다. 제대로 된 재료를 정갈하고 담백하게 조리해 먹고 난 후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약이 되게 하는 사찰 음식의 기본을 지킨다. 된장찌개, 김치, 산나물, 연근 조림, 장아찌 등 밑반찬에도 화학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는다.

연잎밥은 다양한 재료만큼이나 손이 많이 간다. 찹쌀, 흑미, 수수, 콩, 잣, 대추, 밤, 단호박 등 기본 재료만 8가지다. 가장 중요한 재료인 연잎은 여름 제철에 수확해 냉동 시설에 보관해둔다. 연이 대규모로 재배되는 전남 무안에서 매년 2t이 넘는 연잎을 사온다. 다 자란 연잎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듬어 뜨거운 물에 데친다. 이후 찬물로 다시 한 번 헹군 후 여러 장씩 포개 냉동고에 저장한다.

연잎은 예부터 음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용기로 알려져 왔다. 부여에서도 여름에 먼 들로 일을 나갈 때면 연잎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고 전해진다. 연잎밥은 두 번 찐다. 우선, 찹쌀과 기본 재료로 밥을 지은 후 연잎으로 잘 싸서 냉동 보관한다. 이를 먹기 전 꺼내 소금으로 간을 하며 다시 푹 찌내는 방식이다.

정성스럽게 찐 연잎 포장을 한 꺼풀 벗겨내면 찰기가 흐르는 영양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연잎 특유의 향이 여러 재료와 어우러져 식욕을 자극한다.







연잎밥으로 유명한 식당 '백제의집'.



옛 부여 사람들은 궁남지에 지천으로 널린 연잎을 따다가 연잎밥을 지어 먹었다.

### 분홍빛으로 물든 궁남지의 여름

연잎밥 시식 후 찾아가갈 곳은 부여 궁남지이다. 10만m<sup>2</sup> 규모의 궁남지는 무안 회산백련지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연꽃 관광지로 꼽힌다. 서동공원으로 조성된 궁남지 일대가 매년 여름 곱고 화사한 연꽃으로 넘실댄다.

궁남지는 백제 무왕이 사비성 남쪽에 조성한 인공 연못이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궁성 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여 리나 되는 긴 수로로 끌어들이었으며, 물가 주변의 사방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에는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가 왕궁 근처에 연못을 만드는 전통은 이미 한성(풍납토성) 시대부터 전해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용진(공주)의 공산성 안에서도 왕궁지와 함께 연못 유적이 발굴됐다.

현재 궁남지에는 포룡정, 흥련·백련·수련 연못, 분수 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폭이 좁고 긴 다리를 지나 연못 중앙의 포룡정에 이르면 사위가 온통 연꽃과 버드나무에 가려져 1400여 년 전 사비시대로 건너온 듯한 느낌이다.

7월에 궁남지를 찾아가면 연꽃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부여 서동 연꽃 축제는 7월 10~19일 개최된다.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연꽃이 있는 시와 음악의 향연, 농민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종이 연꽃 만들기, 연꽃 부채 만들기, 연꽃 토기 만들기, 연잎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



Tip

### ▶ 부소산



부여시대의 역사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은 해발 106m의 아산인 부소산이다.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삼층사 등 부여의 명소가 이곳에 있다. 북쪽으로는 백마강이 흐르고 아래로는 부여 중심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명소이기도 하다.

문의 :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42

<http://www.buyeotour.net>

### ▶ 부여 여행 정보



#### • 당일 여행 코스

부소산성 → 관북리 유적 → 궁남지 → 국립부여박물관 → 능산리 고분군 → 정림사지

#### • 부여 문화관광 시티 투어

문의 : 041-830-2330

(충남 종합 관광안내소)

#### • 대중교통

서울 남부터미널 → 부여(2시간)

#### • 식당 정보

백제의집 041-834-1212

하늘채 041-834-2227

# “세계한상대회 통해 해외 진출 기회 잡으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의 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의 한인 족 경제인이 고국에 모여 경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대회를 오는 10월 13~15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200여 개 기관과 기업을 선발해 기업 전시회를 연다.



전시장에는 한상 특별관,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특허 산업관 등 250여 개 부스를 마련해 기업 홍보, 수출 상담, 기업인 교류 등을 진행한다.

참가 기업 등록은 8월 31일까지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세계한상대회 전시사무국(☎02-3415-0153)으로 하면 된다.

## “한인 사회 모습 담은 사진 응모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제3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인 사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재외동포 삶의 현장, 한인 사회 풍경, 거주국 현지인과 한인의 교류 활동 등을 주제로 동포가 직접 찍은 아날로그·디지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동포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 가운데 중남미 이민 역사, 광복 70주년 관련 역사 등을 담은 사진을 발굴, 대중에게 선보이는 ‘개인 소장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응모자는 7월 31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photo@okf.or.kr)이나 전화(☎02-3415-0146)로 문의할 수 있다.

## 재외동포재단, 해외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자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오는 9~11월 서울대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어학, 교육론, 한국 문학, 전통문화, 아동 심리 등을 배울 수 있다. 160여 명을 선발하며, 교육비 46만원 가운데 수강생은 1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서는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제출해 오는 7월 31일까지 동포재단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415-0160)나 웹사이트(study.korean.net)로 문의할 수 있다.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aru@yna.co.kr / shaorong@okf.or.kr



한(韓) 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  
Be Hansang, Go Global!

제14차  
세계한상대회

THE 14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5. 10. 13(화) ~ 15(목)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이민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